

중의성과 모호성의 국어교육적 의의

안찬원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 * 이 논문은 제62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2016.12.1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중의성과 모호성의 언어적 가치
- III. 중의성과 모호성의 교육 실태
- IV. 중의성과 모호성의 교육 방향
- V. 맺음말

I. 머리말

“하늘과 땅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런 맥락 없이 위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 하늘에 존재하는 공기, 구름, 새를 떠올리거나 땅 위에 있는 동식물, 사람, 건축물 등으로 대답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조사 ‘과’이다. 이는 중의성을 이용한 수수께끼로 언어유희 중에 하나이다. 즉 단어 ‘하늘’과 ‘땅’을 자연물로 파악하느냐, 단지 표기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이다. 이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문장부호인 작은따옴표를 추가하거나 ‘하늘과 땅’ 앞에 ‘문자’, ‘글자’ 등의 수식어를 붙이면 되지만, 중의성을 해소하게 되면 수수께끼로서의 목적은 상실하게 된다.

중의성은 불분명한 언어 표현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중의성은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중의적인 언어 표현은 변형생성 문법에서 보어와 부가어를 구별하거나 의문사 이동에 의미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일상

적인 언어생활에서 중의성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주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 전산 언어학이 발달함에 따라 언어의 중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어교육에서도 중의적인 표현을 삼가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교육에 조명하였다.

중의적인 표현이 항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제시한 수수께끼를 비롯하여 유머, 광고, 문학 작품 등 다양한 텍스트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의성의 가치에 대해 살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중의적인 표현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말장난으로 특정한 경우에 사용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성일(2008: 343)에서는 이를 전통언어학에서 중의성을 하나의 일탈적 표현으로 보고 해소의 대상으로만 치부해 버렸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중의적인 표현 해소에 조명하는 교육은 우리의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 일상생활 중에서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중들은 의도적으로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국어교육에서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언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교육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중의적인 표현이 일상생활 중에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고 이를 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중의성과 모호성의 언어적 가치

중의성(ambiguity)은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모호성(vagueness)은 어떤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 개념이 전하는 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

다(윤평현, 2008). 중의성은 분명한 뜻이 두 가지 이상인 것으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성과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박영순, 2005), 중의성을 화자가 제시한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써 청자가 해석하는 데 곤란을 느끼게 하는 복합적 의미관계라 정의할 경우 모호성과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임지룡, 1992). 중의성과 모호성은 해석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두 의미가 배타적으로 나타나거나 단계적 층위가 존재할 때에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이기웅, 1996; 이민우 2010). 중의성과 모호성을 구분하지 않는 관점은 화자와 청자를 상정하여 정의한 것으로, 국어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다.

중의성은 주로 의미론에서 다루어졌는데, 의미론의 주된 임무는 중의성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었다(Katz, 1972; Kempson, 1977). Ullmann(1962)은 중의성을 음성적 중의성, 어휘적 중의성, 문법적 중의성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어휘적 중의성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의해 발생하고 문법적 중의성은 어휘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해석상 발생한다. 어휘적 중의성과 문법적 중의성은 주로 이를 해소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Grice(1975)에서는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원칙의 하나로 대화에 참여한 화자는 중의성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내에서는 국어에 나타나는 중의성과 모호성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거나 이를 해소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박종갑(2001 ㄱ, 2001 ㄴ), 김준기(2002)는 국어 부정부문에 나타나는 중의성의 양상을 분석하였고, 황화상·최정혜(2003), 김진해(2004), 남경완·최정혜(2006)는 중의성 해소 방법을 논의하였다.¹⁾ 다만 이들 연구는 일상 발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인 것이 아니라 중의성을 해소하여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컴퓨터로 형태소 분

1) 황화상·최정혜(2003)에서는 형태소 해석 양상에 따른 유형과 문법 범주 차이에 따른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김진해(2004)는 동사의 목록과 의미부류를 분석함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들 논의의 유형 분류는 중의성 해소에 목적이 있다.

석을 명확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근 전자 사전의 등장과 자동 번역의 필요성에 따라 중의성은 언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박진호, 2006; 홍중선, 2007), 이에 따라 중의적인 표현은 모호한 표현의 일종으로 부정적인 관점이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중의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는 주로 분위기 전환을 위한 농담이나 유머, 언어 전략으로서 광고 등에 사용되는 현상을 다룬 것들이다. 최형용(2000)에서는 중의성 해소 과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 광고 전략으로 활용된다고 해석하며, 한성일(2007, 2008)에서는 광고 텍스트의 중의성이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제품을 각인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²⁾

유머나 광고 등에 사용되는 중의적 표현이 언어전략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특정 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일상적인 언어 현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호한 지각 현상을 분석하는 퍼지 이론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언어는 정확한 표현보다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표현이 상당히 많다.³⁾ 예를 들어, ‘빨강, 노랑, 파랑’ 등 색깔에 관련한 단어나 ‘이마, 뺨, 턱’, ‘가슴, 배’, ‘엉덩이, 궁둥이’ 등 신체와 관련한 단어는 의미적인 면에서 분명하다고 파악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퍼지 이론에서 ‘참’이나 ‘거짓’이나 하는 ‘0’과 ‘1’의 이분법적 논리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로 취급된다. ‘더미의 역설(sorites paradox)’⁴⁾은 언어

2) 한성일(2007, 2008)에서 광고 텍스트의 전략으로 주로 활용되는 중의성의 유형을 어휘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 관용적 중의성, 화용적 중의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박영순(1998)의 것을 참조한 것이다. 즉 박영순(1998)의 7가지 유형 중에서 언어전략으로 많이 활용되는 ‘어휘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 관용적 중의성, 화용론적 중의성’을 재분류하였다.

3) 퍼지 이론은 속성의 정도를 다루는 ‘정도의 학문’이다. ‘아름다운 여성들의 집합’, ‘키 큰 사람들의 집합’, ‘큰 수들의 집합’ 등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집합을 ‘퍼지 집합’이라고 명명하였다(김평원, 2011).

4) 더미의 역설(sorites paradox)은 모호한 표현이 적용되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 사이

의 모호성을 잘 드러낸다. 더미의 역설에 의하면 낱알을 모아 놓은 더미에서 한 알을 빼도 더미가 되고, 그 다음 한 알을 빼도 더미가 된다. 반대로 낱알 한 알에 한 알을 더한다고 해서 더미가 되지 않는다. 단어 ‘대머리이다, 크다’ 등의 의미는 실제로 모호하다.

의미의 불특정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문학 작품이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는 ‘저만치’란 불특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리 측정을 독자의 임의에 맡긴다. 즉 독자마다 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과 정서 등에 따라서 이 측정은 각기 달라질 수 있다(홍승우, 1997: 400).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의 모호성은 표현 가능성을 확대해 주는 언어의 창조적 원리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중의성의 유무에 따라 표현 의도가 달라진다. 박종갑(2012)에 따르면 의문문이 질문의 의미가 아닌 주의환기 등의 화용론적 의미를 나타낼 때 중의성의 발생은 언어의 수사적 표현력을 높여 언어가 갖 추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인 표현성 제약을 충족시킨다.⁵⁾ 임지룡(2013: 34)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따라 문법교육에서 중의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논의는 중의성과 모호성이 해소되어야 할 언어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언어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맥락에 따라 교육해야 할 관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에 선명한 경계를 확정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정확히 낱알 몇 알이 있어야 더미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어야 대머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rensen(1985), Keefe(2000), Fara(2003), 이준효(2011), 이진희(2013), 이향천(2015) 등을 참조.

- 5) 박종갑(2012)은 융합 및 탈락과 같이 언어의 형식 구조에 조작을 가하는 방법과 선택제 약적 일탈 및 정보구조적 일탈과 같이 언어의 의미 구조에 조작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국어 의문문에 나타나는 화용론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의성을 부정적인 언어 현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명확성과 표현성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한다.

III. 중의성과 모호성의 교육 실태

중의성과 모호성의 언어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중의적인 표현과 모호한 표현은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과제로 취급된 경향이 있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1)에서와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을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최종적으로 모호한 표현은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도록 안내한다.

(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8학년] (4)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구별하기

○ 중의적 표현을 해석하고 표현의 장단점 이해하기⁶⁾

○ 모호한 표현이 된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기

여기에서 중의적 표현은 주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등의 어휘적 중의성과 수식어나 부정부 문 등의 구조적 중의성에 기인한다. 이때 두 가지 이상의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중의성과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성을 구분하는 관점을 취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자와 청자, 맥락을 상정할 경우 실제 언어 현상에서 중의성과 모호성의 경계가 불명확해진다. 이에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을 구분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관점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6) “중의적 표현의 장단점 이해하기”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중의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장단점’이라는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의적 표현은 특정 상황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다는 관점을 내포한다. 더욱이 중의성과 모호성이 언어의 특성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고의 관점은 VI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반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의적 표현을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간주한다(밑줄은 필자).

(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 중학교 1~3학년군] (7)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략> 다양한 구조의 문장들을 표현 의도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 중의문처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찾아 그 이유를 탐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위 내용에 드러난 바와 같이 중의문처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의 원인을 탐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즉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중의적 표현은 해소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중의성과 모호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문장을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도록 한 교육과정의 입장은 국어 교과서에도 충실하게 반영된다. 다음은 2012년에 출판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교과서에서 문장의 중의성과 모호성을 다룬 예이다.

(3) 박영목 외(2012: 248)

7.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문장의 중의성과 모호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 ① 다음 문장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며, 그것은 어떤 요소 때문인지 생각해 보자.
 - ☒ 그는 형과 동생을 찾아다녔다.
 - ☐ 확실히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 ☒ 학생이 다 출석하지 않았다.
 - ☐ 그는 양복을 입고 있다.
- ② 다음 문장들이 모호성을 띠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 머리 조금만 잘라 주세요.
 - ☐ 적당히 데치시면 돼요.
 - ☒ 아무거나 먹을게.
 - ☐ 방학 과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
- ③ 위 ①, ②를 참고하여 문장의 중의성과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해 보자.

(3)에서의 활동은 중의적인 문장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문장이 모호성을 띠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중의성과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습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의성과 모호성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치중한 선행 연구에서의 관점과 유사하다.

(4) 이남호 외(2012: 260)

4. 다음 장면을 보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고쳐 써 보자.



① 그녀는 손이 크다
→



② 그는 구두를 신고 있다.
→

위 (4)에서도 중의적인 표현을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의 중의문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기술에도 잘 나타난다.

(5) 중의문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듣는 이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말하는 이는 중의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삼형 외(2012: 306)]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중의적 표현은 청자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중의성과 모

호성을 해소해야 할 언어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수용한다. 다음과 같이 실용국어에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의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6)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2실국01-02]국어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중략〉 문장의 짜임을 표현 의도와 연관 지어 탐구하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찾아 그 이유를 분석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중의성과 모호성이 나타나는 표현은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야 할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의성과 모호성은 언어생활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할 표현이 아니라 언어가 지니는 특성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언어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맥락에 따라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중의성과 모호성의 교육 방향

중의성과 모호성에 대한 다양한 언어학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는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또는 특정한 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중의성과 모호성을 언어적 특성으로 이해하

고 다루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1. 언어 특성으로서의 모호성 이해

인간은 다양한 언어 상황과 직면하며,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는 다양한 언어 생활 속에 존재하므로 국어교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모호성이라는 언어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모호성의 언어적 특성

국어교육에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강조한 것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모호성 해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모호한 표현은 일상적인 현상이다.

의미의 모호성은 주로 ‘길, 더미; 잘, 조금; 크다, 좋다, 하다’와 같이 의미가 포괄적인 단어에서 발생한다. ‘더미이다’, ‘대머리이다’, ‘키가 크다’ 등으로 잘 알려진 더미의 역설(sorites paradox)은 언어의 모호성을 잘 나타낸다. Keefe(2000: 11-14)는 자연언어의 술어들이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미이다’와 같이 전형적으로 모호한 술어가 가지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즉 모호한 술어는 경계 영역과 흐릿한 경계를 가지며, 더미의 역설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어가 선명한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덥다’와 ‘춥다’는 척도상에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명확한 경계선을 찾기 어렵다. 또한 연구자마다 이들 단어에 대한 해석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도 하다. Cruse(1976: 291)에서 ‘hot’과 ‘cold’

을 반의어 쌍으로 다룬 반면, Lehrer(1985: 405)에서는 ‘hot-warm-cool-cold’ 네 개의 단어를 하나의 척도로 정의하는데, 이는 단어의 의미를 개인마다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들 단어가 일상생활에 사용될 때에는 척도상의 대립을 보이는 기준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7) 평년보다 높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요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안이 너무 덥고 답답하다”, “담요를 덮고 싶을 만큼 추워서 항상 떨고 있다” 지하철 운영 기관은 승객들의 민원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일요서울, 2017.01.13.)

(7)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덥다’, ‘춥다’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이다. 지하철 객실 내 온도는 겨울에 18~20℃, 여름에 24~26℃를 유지하는 등 적정 온도를 설정한다. 그런데도 개인별 체감 온도가 달라 지하철 운영 기관은 내부 온도를 높일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단어 ‘덥다’, ‘춥다’에 적용할 경우, 등급 반의어의 척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언어 보편적인 경계는 더욱 흐릿해진다.

동일한 발화를 화자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어의 모호성에 기인한다. 다음은 포털 사이트에서 발췌한 질문과 대답이다.

- (8) [질문] 다들 저한테 착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착하다는 말 하는 사람들의 속뜻이 궁금해요.(네이버 지식iN)
- ㄱ. 착하다는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말입니다.
- ㄴ. 바보 같거나 어리숙해 보여서 착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짜 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 ㄷ. 착하다는 게 제 생각엔 남을 좀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며 남의 말

잘 들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감정조절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단어 ‘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이나 특출한 장점이 없는 사람에게 칭찬 대신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8)에서 질문자는 반복되는 칭찬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취하게 된다. 단어의 모호성에 의해 화자마다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발견된다.

(9) A: (전화로 통화하는 상황) 진우 갔어?

B: 응.

A: (약속 장소에 도착한 상황) 어? 진우 없잖아?

B: 아까 갔다고 했잖아.

(9)의 대화에서는 단어 ‘가다’의 해석 차이로 혼란이 발생하였다. 즉 A는 자신의 위치에서 진우가 약속 장소로 가고 있다는 의미로 질문을 하였으나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한 B는 진우가 떠났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이다. 이 동 동사가 본래 화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석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9)에서 발생한 혼란은 언어의 모호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언어 상황에서 모호성이 발현된다. 언어 세계가 실제 세계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모호성은 언어의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오해와 혼란을 일으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현상은 모호성의 본질적 특성이라 할 수 없다. 모호성은 언어 세계에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어교육에서는 모호성을 언어의 특성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중의적 표현의 의도적인 사용

언어의 중의성과 모호성은 다양한 언어 상황에서 발견된다. 특정 상황에서 언중들은 언어의 모호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한다. 때에 따라 중의적 표현과 모호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언어 현상은 수수께끼, 유머, 광고 텍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10) ㄱ. 조금만 나와도 쑥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답: 쑥)

ㄴ. 편식이 아무리 심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은? (정답: 나이)

(10 ㄱ)은 동음어를, (10 ㄴ)은 다의어를 활용하여 수수께끼를 만든 예이다. (10 ㄱ)은 부사인 ‘쑥’과 식물인 ‘쑥’을 활용하였다. (10 ㄴ)은 명사 ‘편식’을 써서 음식을 먹는 의미를 유도하였으나 정작 수수께끼의 정답은 나이를 더 하는 ‘먹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밖에 동일한 음운현상에 의한 중의적 표현을 사용기도 한다. 다음은 개그 프로그램의 예로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앞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사건의 전말과 관련 없는 엉뚱한 단서를 제공하며 웃음을 유발한다. (11 ㄱ)은 ‘죽이다(kill)’와 ‘죽(粥)-이다’, (11 ㄴ)은 ‘살인(殺人)-은’과 ‘사리-는’의 발음이 동일한 것을 활용하였다.

(11) ㄱ. 내가 다 봤어요. 또 죽일 거예요. …… 오늘 저녁 메뉴는 또 죽일 거예요. 엄마가 맨날 죽만 끓여줘요. 콩죽, 팥죽, 매생이죽. 또 죽일 거예요. 이젠 밥 먹고 싶어요.

ㄴ. 내가 다 봤어요. 더 이상 살인은 안 돼요. …… 더 이상 부대찌개에 넣는 사리는 안 돼요. 더 이상 떡 사리, 햄 사리 등은 안 돼요. 국물 다 졸았어.

광고 텍스트에서 중의성은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 전략으로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제품을 각인시키는 데 기여한다. 중의성이 청자나 독자에

게 혼란을 일으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으나 광고에서는 중의성의 의미가 해소되는 과정이 오히려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12) ㄱ. 싸다구! <쇼핑포털 쿠차>

- ㄴ. 사랑한다면 바다주세요. <해양 생물 보호 포스터(펭귄)/부산아쿠아리움>
- ㄷ.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캐변요구르트/파스퇴르>
- ㄹ. 때가 왔다. / 이 남자 찌든 때 / 모든 때엔 세제혁명 <세제혁명/사리엔스>
- ㅁ. 철없던 니가 철들었구나. / 마시는 빈혈 치료제 헤모큐. / 빈혈 안녕. <철분제 헤모큐/대웅제약>

(12 ㄱ)은 ‘싸다(cheap) - 고’와 ‘(귀)싸대기’의 유사한 발음을, (12 ㄴ)은 ‘받아 주세요’와 ‘바다 주세요(바다를 돌려주세요)’의 동일한 발음을, (12 ㄷ)은 ‘보다’의 다의적 의미, (12 ㄹ)은 동음이의어 ‘때’, (12 ㅁ)은 ‘철들다’의 중의성을 활용한 것이다. 중의성을 활용한 광고 전략은 일반 소비자가 가장 익숙한 의미를 가진 사전적 의미를 연상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소비자는 의미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낯설게 하기 효과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오창일(2013)에서는 익숙함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크면 클수록 주목 효과가 높아지게 되고 숨어 있는 의미를 간파하게 되어 ‘발견의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해석한다. 즉 소비자가 평소에 예상하지 않았던 조합을 새롭게 느끼며 상품이 제공하는 생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나 메시지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발음이나 형태를 활용한 주의주목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문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고양은 캐릭터로 유명한 경기도 고양시는 (13 ㄱ)에서와 같이 홍보용 현수막에 ‘- 할 고양’이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본래 까치를 도시 상징물로 사용하던 고양시는 동일한 발음인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13 ㄴ)에서 서울시 노원구는 영문자 ‘NOWON’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13) ㄱ.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고양! (경기도 고양시)

ㄴ. NO WON, NOW ON, NO.1, I ♥ NOWON

돈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 행복은 1등 (서울시 노원구)

국어교육에서 중의성을 활용한 교육은 언어의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 언어적 창의성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어 이해와 표현 상황에서 기존 하는 요소들로부터 새롭거나 독창적인 산물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적절성과 유용성을 갖추어 가는 정신 과정을 말한다(이경화, 2003). 이종철(2000)에서는 언어 표현이 담고 있는 생각의 창의성과 언어 표현 자체의 창의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수수께끼, 유머, 광고, 자방자치단체 홍보 문구 등은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예에 속한다. 중의성을 해소의 관점에서 다룰 경우 언어의 창의성을 교육하기가 어려워진다. 국어교육에서 언어 특성의 하나로 중의성을 다루어야 창의성 교육과의 연계가 수월하다.⁷⁾

이 밖에 중의적인 표현은 대화 상황에서 청자나 제3자를 배려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주로 모호한 표현을 활용한다. 이러한 예로 이정애(2012: 53-55)에서는 국어의 ‘괜찮다’가 여러 제안이나 요구에 대해 수용과 거절의 응답으로 사용하는 간접 표현이라 설명한다. 즉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을 염려하여 간접적으로 거절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14) A: 커피 한잔 드릴까요?

B: 괜찮아요.

A: 한 잔 드릴게요.

B: 정말 괜찮아요. 금방 마셨거든요.

7) 이종철(2000)에서는 창의적인 어휘 사용을 위한 인지 전략으로서 ‘유추’ 전략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유추 전략은 확대, 축소, 대치, 비유, 변형 전략 등으로 세분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

(15) A: 커피 한잔 드릴까요?

B: 괜찮아요.

A: 한 잔 드릴게요.

B: 고마워요.

(14)는 거절의 표현으로, (15)는 수락의 간접 표현으로 사용된 예이다. ‘괜찮다’가 거절과 수락의 간접 표현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것은 ‘괜찮다’의 의미가 지닌 모호성에서 기인한다. (14)는 선의를 베푸는 상대방을 배려한 완화의 기능을, (15)는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요청에 대해 먼저 사양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5)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공손성’으로 해석하여 청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기존의 국어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 특성을 소홀히 하고 정확한 표현을 강조하여 본의 아니게 학습자에게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중의성과 모호성이 오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언어의 특성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줄 때 중의성과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중의성과 모호성의 해소

중의성과 모호성을 해소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활동은 문맥이나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확성은 유창성과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의 논의에서는 유창성에 정확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1) 어휘적 중의성 해소

어휘적 중의성은 주로 다의어, 동음어, 접촉성 동사⁸⁾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논의되었다.

(16) ㄱ. 손을 잡다.

ㄴ. 배가 크다.

ㄷ. 누나가 옷을 입고 있다.

(16ㄱ)은 다의어인 ‘손’, (16ㄴ)은 동음어인 ‘배’, (16ㄷ)은 접촉성 동사와 ‘-고 있-’의 결합으로 중의성이 발생한 예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이러한 유형의 중의적인 표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여 교육한다. 그러나 (16)은 (16')와 같이 일상 언어생활 중에 논항이나 수식어, 맥락에 의해 어휘적 중의성이 해소되는 예가 많아서 실제로 어휘가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16') ㄱ.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글 돌아라.

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정말 크다.

ㄷ. 누나가 아직까지 옷을 입고 있어서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국어교육에서 실제적인 언어 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맥락이 제시된 텍스트에서 중의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8) 접촉성 동사는 ‘쓰다, 매다, 감다, 엮다, 짚다, 타다’와 같은 동사를 일컫는다(윤평현, 2008: 252). 이들 동사는 현재 진행과 상태 지속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여 중의성을 띄는 것으로, 우창현(2003)에서는 이를 ‘시작점, 과정, 끝점, 결속과 지속’ 등의 내부 시간 구조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 (17) ㄱ. 우리는 과자를 먹으면서 영화를 봤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조금 감동했다. 내일도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일기장)
- ㄴ. 생일파티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런칭맨이다. 런칭맨은 계속해도 재미있다. ○○이는 재미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웃기다. ○○이 생일파티에 초대 받아서 좋다. 생일파티가 정말로 재미있는 것 같다.(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일기장)

(17)은 의미 영역이 넓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모호성을 가진다. 특히 (17 ㄱ)에서 ‘재미있었지만’을 단순히 즐겁고 유쾌한 감정으로 해석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필자는 회극적이고 감동적인 요소를 동시에 느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재미있었지만’을 ‘웃겼지만, 유머러스했지만, 익살스러웠지만’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ㄴ)은 ‘재미있다’ 대신 ‘기쁘다, 즐겁다, 반갑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흐뭇하다, 흥겹다, 흥미롭다’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미의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을 어휘 교육과 연계하여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 쓸 수 있다.

2) 구조적 중의성 해소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국어에서는 수식 관계, 부정문, 접속조사 ‘와’ 등의 예가 대표적이다.

- (18) 수돗물을 세계 틀어 놓고 씻지 않는다.
- ㄱ. [수돗물을 세계 틀어 놓고 씻지] 않는다.
- ㄴ. 수돗물을 세계 틀어 놓고 [씻지] 않는다.

(18)은 부정어 ‘않다’의 수식 범위나 동사의 논항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중의성에 해당한다. (18 ㄱ)은 손 씻는 방법을 설명할 때 물을 아껴 쓰자는 의

도를 전달할 수 있으며, (18ㄴ)은 딸기와 같은 과일 등을 세척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 가능한 문장이다. (18ㄱ)은 (18'ㄱ)으로, (18ㄴ)은 (18'ㄴ)으로 고쳐 씀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⁹⁾

(18') ㄱ. 손을 씻을 때 수돗물을 세게 틀어 놓지 않는다.

ㄴ. 딸기는 수돗물을 세게 틀어 놓고서 씻지 않는다.

(19)는 동사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중의적인 표현으로 어절 ‘북한이’가 어두에 위치하여 동사 ‘우려하다’ 또는 ‘강행하다’의 주어가 될 수 있다.

(19) 북한이 우려한 대로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강행했다. 청와대는 발사직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하고 긴급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프론티어타임즈, 2016.02.07.)

ㄱ. [북한이 우려한 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ㄴ. 북한이 [우려한 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19ㄱ)은 (19'ㄱ)에서와 같이 ‘강행하다’의 주어를 삽입하고, (19ㄴ)은 주어 ‘북한이’를 ‘우려한 대로’에 후행시킴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19') ㄱ. 북한이 우려한 대로 (러시아가/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ㄴ. (우리가) 우려한 대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을 발화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를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18)에서와 같은 중의성은 맥락이 주어질 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의성 해소 교육은 표현의 명확성을 지향하므로 문장에서 관련 정보가 생략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화용적 중의성 해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은 발화 장면에 의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이 발화의 화용적 특성에 의해 생성되는 중의성이 있다. 다음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의 특성상 생긴 중의성에 해당한다.

(20) (C가 S에게 주문한 물품이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C: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배송하신 건가요?

S: 예?

(몇 분의 시간이 경과한 후)

C: 금요일에 도착한다고 알려주셨는데 답신을 보니 전혀 모르고 계시나 보네요. 다른 곳에서 구입하겠습니다.

S: 아뇨. 보냈는데 안 갔다고 하니 놀래서 그러는 거죠.

(잠시 후)

S: 택배 사무실에 연락해 봤어요. 빨리 알아보라고.

C: 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은 소비자(C)와 판매자(S)의 대화로 주문한 물품이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아 문의한 내용이다. 판매자는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고충을 배려하지 않고 “예?”라는 모호한 대답을 하여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었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응답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에서 소비자는 주문한 물품이 예정된 날짜에 도착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이므로 판매자가 모호한 대답을 한 후 몇 분 동안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 대면하게 되면 이를 부정적인 의미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응대에 해당하여 의사소통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어교육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청자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로 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중의성과 모호성의 언어적 가치를 살펴보고 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의성과 모호성은 다양한 언어 상황에서 발견되며, 이는 언어 세계에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의성과 모호성을 언어 특성의 일부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은 주로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고쳐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이는 중의성과 모호성은 해소해야 할 특성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기인한다.

국어교육에서 중의성과 모호성을 언어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맥락이나 사용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의성과 모호성이 언어가 지닌 자연스러운 특성임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상황과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경우를 변별하여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중의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은 수수께끼나 유머 등의 언어유희, 광고 텍스트 등 주의 주목 효과를 줄 때, 청자나 제3자를 배려할 때 등이다.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은 주로 중의성과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치중하여 왔다. 기존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임을 인식하고 맥락에 따른 표현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언어 특성으로서 중의성과 모호성을 인식하고,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해소하는 교육과 의도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교육이 균형을 이룰 때 실제적인 국어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7. 4. 30. 투고되었으며, 2017. 5. 16. 심사가 시작되어 2017. 6. 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제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제2012-14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교육과학기술부.
- 김준기(2002),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64, 147-170,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진해(2004), 「분포를 통한 부사 ‘그만’의 중의성 해소 연구」, 『담화와인지』 11(2), 43-64, 담화·인지언어학회.
- 김평원(2011), 「퍼지 논리를 활용한 논증 텍스트 분석 모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1, 339-378, 국어교육학회.
- 남경완·최정혜(2006), 「중의 어절의 문법 범주별 유형 연구」, 『민족문화연구』 45, 329-3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박영목·민현식·천경록·신명선·박의용·이지은(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주)천재교육.
- 박영순(2005), 『국어문법 교육론』, 박이정.
- 박종갑(2001ㄱ),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하여(1)」, 『한민족어문학』 38, 163-183, 한민족어문학회.
- 박종갑(2001ㄴ), 「국어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하여(2): 중의적 의미 해석과 관련된 인식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어문학』 74, 1-20, 한국어문학회.
- 박종갑(2012), 「국어 의문문의 화용론적 중의성 해소 방법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31, 143-163, 우리말학회.
- 박진호(2006), 「자연언어처리와 국어 연구」, 『국어국문학』 143, 97-122, 국어국문학회.
- 오창일(2013), 「광고 창의성의 생성과정과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고 언어(카피)의 중의성을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6(3), 35-67, 한국광고PR실학회.
- 우창현(2003), 「국어 상 해석에 있어서의 중의성 문제」, 『국어국문학』 133, 145-165, 국어국문학회.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경화(2003), 「언어적 창의성의 개념과 국어과 교육 내용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4, 183-21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기웅(1996), 「텍스트의 의미구조와 중의성의 해소」, 『언어학』 19, 259-281, 한국언어학회.
- 이남호·이관규·김유범·신호철·정경주·조혜숙·남궁민·하성욱·김부연·이수진(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주)비상교육.
- 이민우(2010), 「다중적 의미 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32, 193-213, 한국어의미학회.
- 이삼형·권순각·김중신·김창원·양정호·이성영·정재찬·조형주·최지현(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주)지학사.
- 이선영(2011), 「국어의 모순어에 대하여」, 『국어학』 61, 265-289, 국어학회.
- 이정애(2012), 「국어의 간접성과 NSM」, 『어문학』 118, 37-61, 한국어문학회.

- 이종철(2000), 「창의적인 어휘 사용 능력의 신장 방안」, 『국어교육』 102, 155-179, 한국어교육학회.
- 이준효(2011), 「모호성과 맥락조정논변」, 『논리연구』 14(1), 23-54, 한국논리학회.
- 이진희(2013), 「더미의 역설과 초평가주의」, 『논리연구』 16(2), 189-232, 한국논리학회.
- 이향천(2015), 「역설 의미론의 기초」, 『언어학』 71, 185-219, 한국언어학회.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 출판사.
- 임지룡(2013), 「문법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46, 5-44, 국어교육학회.
- 최형용(2000), 「텍스트언어학의 이론과 응용: 광고 전략과 언어적 중의성」, 『텍스트언어학』 9, 169-19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한성일(2007), 「광고 텍스트의 중의성 연구」, 『한말연구』 20, 267-292, 한말연구학회.
- 한성일(2008), 「언어전략으로서의 중의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27, 341-364, 한국어의미학회.
- 홍승우(1997), 「사이비문제로서 동음이의어와 언어의 모호성」, 『외국어교육연구』 11, 387-40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홍충선(2007), 「한국어 기계 번역에서의 중의성 처리 연구」, 『국어학』 50, 241-267, 국어학회.
- 황화상·최정혜(2003), 「한국어 어절의 형태론적 중의성 연구」, 『한국어학』 20, 287-311, 한국어학회.
- Cruse, D. A. (1976), "Three classes of antonym in English," *Lingua* 38(3-4), 281-292.
- Fara, D. G. (2003), "Gap principles, penumbral consequence, and infinitely higher-order vagueness," In: J. C. Beall (ed.), *Liars and Heaps: New essays on paradox* (195-221), Oxford University Pres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41-58), Academic Press.
- Katz, J. J. (1972), *Semantic Theory*, NY: Harper & Row.
- Keefe, R. (2000), *Theories of Vagu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mpson, R. M. (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hrer, A. (1985), "Markedness and antonymy," *Journal of linguistics* 21(2), 397-429.
- Rosch, E. H. (2011), "Slow lettuce: Categories, concepts, fuzzy sets, and logical deduction," In: G. J. Klir (ed.), *Concepts and Fuzzy Logic*, MIT Press.
- Sorensen, R. (1985), "An argument for the vagueness of 'Vague'," *Analysis* 45, 134-137.
-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중의성과 모호성의 국어교육적 의의

안찬원

이 글은 중의성과 모호성의 언어적 가치를 살펴보고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의성과 모호성은 언어 세계에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 반영되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언어의 특성으로 교육해야 한다. 언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수수께끼나 유머 등의 언어유희, 광고 텍스트 등 주의 주목 효과를 줄 때, 청자나 제3자를 배려할 때 등이다. 중의성과 모호성을 해소하여야 할 상황은 주로 의미의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방해할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화용적 중의성을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어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언어 특성으로서 중의성과 모호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해소하는 교육과 의도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교육이 균형을 이룰 때 실제적인 국어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국어교육, 중의성, 모호성, 중의성 해소, 언어의 특성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Ambiguity and Vagueness in Korean Education

An Chan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sirable educational direction for ambiguous expressions and vague expressions.

The ambiguity and vagueness in the language is a natural phenomenon that occurs due to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and society in the language world. Therefore it should be taught as part of nature of language. It is advantageous to intentionally use ambiguous and vague expressions in the following cases: calembour such as mystery and humorous text, attention effect on advertisement text, and strategies to care for listeners. The ambiguity and vagueness of the meaning must be resolved when it interferes with communication using expressions lacking specificity. In this case, it is desirable to distinguish the lexical ambiguity, structural ambiguity, and pragmatic ambiguity.

We must first recognize ambiguity and vagueness as nature of language in Korean education. Then there is a balance between education to resolve them and education to use them with a purpose.

KEYWORDS Korean Education, Ambiguity, Vagueness, Resolving Ambiguity, Nature of Language